땅에 사는 천국 이슈메이커

(스가랴 1장 1절~21절)

7. 다리오 왕 제이년 열한째 달 곧 스밧월 이십사일에 잇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8.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9.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10.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11.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땅에 사는 천국 이슈메이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땅에 사는 천국 이슈메이커'
이슈(issue)란 주제, 쟁점, 논점, 문제, 사회적 관심거리 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슈메이커란 자신이 속한 사회 내에서 이야깃거리를 계속 만들어 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설령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스가랴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어떻게 보자면 전혀 신선함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의 의미는 단순한 기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대해 기억하신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은 그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에서는 천상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인류를 두루 살펴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욥 한 사람을 거명하시며 이슈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스가랴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8~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하시자 사탄이 “…욥이 어찌하여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슈라는 말이 뜻하는 대로 욥이 하늘에서의 논쟁거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로 바꾸어보자면 “하늘 이슈메이킹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이란 정말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겨서 회개하지 않는 아흔아홉 명보다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천국에서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이슈를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속이 아니라면 천국 기준에 맞는 이슈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천국 소속이 된다면 그 증거로 우리의 마음에서는 천국이 현실이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오늘의 말씀으로 해석해보자면 “내가 천국의 이슈가 되게 하옵시며”라는 말과 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앞서 살펴보았던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BC.536년에 시작된 성전 재건 작업은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중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후에야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작업은 재개됩니다. 그로부터 2달 정도 뒤에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도 시작됩니다.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습니다. 8장까지는 성전 재건 작업이 개시된 BC.520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전이 완공되는 BC.516년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두고 여덟 개의 환상으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본문 1장에는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환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7절까지 첫 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 골짜기 속에 화석류나무가 나타납니다. 화석류나무는 근동지방에서 자라는 상록수로써 종려나무나 감람나무처럼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나무 중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화석류나무는 향기가 좋아서 광야생활을 기념하던 초막절에 초막을 짓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화석류나무는 이사야서에서 미래에 등장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언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붉은 말을 탄 사람은 9절과 11절에서 '내 주' 혹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언급됩니다. 화석류나무가 일찍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육신하시기 전의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의 하반부를 보면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뒤쪽으로 또 한 마리의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들이 누구인지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말을 탄 이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는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BC.520년 무렵은 페르시아 제국이 최전성기를 이루던 이 시기입니다. 따라서 대제국 내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신앙적 의미를 놓친 표면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스리시는 방식이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보내시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앞서 등장한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예수님이 타신 붉은 말이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에 흘리실 붉은 피를 의미해서 그로부터 생겨날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뒤에 나오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땅에 임하는 모습으로 상징합니다. 이 땅에 두루 다니도록 보내신 말들 중에서 붉은 말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밀착된 마음상태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하나님 대신 세상과 밀착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세상에 정복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마음이 밀착된 상태가 바로 죄악입니다.

예를 들어 돈과 마음이 밀착되었을 때에 돈을 벌고 싶다는 죄악 된 계획과 의지가 나타납니

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돈이 벌려지지는 않습니다. 죄악은 인간에게서 생성되지만 그 죄악이 표현되는 길은 하나님의 주관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관하심이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색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이 죄악으로 인해 생겨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재난을 의미한다면, 백색 말은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죄악 가운데 인간들이 원하는 형통과 번영과 안정을 의미합니다. 자줏빛은 붉은색과 백색이 섞인 색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재난이 가득한 죄악 된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백색으로 표현된 형통과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들의 죄악이 표현되는 일조차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3~4절에 나타납니다. 3절에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였고 4절에서도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다시 돈을 예로 들어봅니다. 돈에 밀착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에 휘말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 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휘말려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밀착된 상태에서 세상에 포로 되고 정복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전쟁을 하고 단체들이 갈등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야당과 여당이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당리당략을 위한 목불인견의 싸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을 들여다봐도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합니다. 이러한 모습 자체는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국을 기준으로 볼 때에 이렇게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는 인간 세상은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모두가 다 세상에 밀착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정복을 당해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언급될 이야깃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쟁이 나더라도 그것은 천국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조차도 세상에 정복되고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식상한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취하던 두 학생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학생의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 학생은 오늘 말씀처럼 평안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곱게 누워있었고 한 학생은 입에 거품을 물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서 보니 겉모습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평온하게 누워있던 학생은 괜찮을 줄로만 알았고, 고통스럽게 거품을 물고 있던 학생이 위중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평온하게 누워있던 학생은 다리 한쪽을 잘라야만 했고 오히려 거품을 물고 고통스러워했던 학생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평온하게 누워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연탄가스에 완전히 정복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저항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하던 학생은 온 몸으로 연탄가스와 저항하는 과정에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생각해보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는 말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죄악에 저항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세상에서는 큰 이슈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핵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것을 이야깃거리로 삼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세상에 휘말려있는 상태임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핵전쟁이 요란한 이슈거리가 될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에서는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죄에서 돌아서는 순간이 이슈가 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아내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남편에게 휘말려 들어가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인정함을 통해서 세상에 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국에서는 핵전쟁보다도 세상에 맞서서 저항하는 이 한 사람이 더욱 큰 이슈가 됩니다.

욥이 천상회의에서 이슈가 되었던 이유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욥은 세상에 대해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두루 다녀 온 사탄은 세상의 기운에 정복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세상기운에 정복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당리당략을 위해 싸움을 일으키고 요란합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한 시도 잠잠할 날이 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슈가 되지 않으니 평온하고 조용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의 시끄러움은 마음이 세상에 밀착되어있는 증거입니다.

풍랑을 만난 배에서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풍랑을 맞이하면서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달랐던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이 세상과 밀착되어 휘말려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풍랑은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속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뜻하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내용과 같이 지금 예언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3절

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휘말려 살지 말고 저항하라는 것이고,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의 포로 됨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건축되기를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시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포로 되어 살던 선민이 징벌을 받아 칠십 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였으니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성전 재건을 통해 세상에 저항하기를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성전이 되시고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전의 존재 의미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이슈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 건강 가족 등을 앞잡이로 내세워 나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인정함으로써 세상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이슈를 던지는 자들이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속한 자들만이 마음에서 천국을 현실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천국 이슈메이커로써 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함으로써 땅에 사는 천국 이슈메이커로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가족과 사업과 돈 문제와 건강 문제 같은 가지가지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것과 같이 세상에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세상과 경쟁하고 싸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를 살아도 땅에 사는 천국 이슈메이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